

# 경제주평

-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 목 차

## ■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6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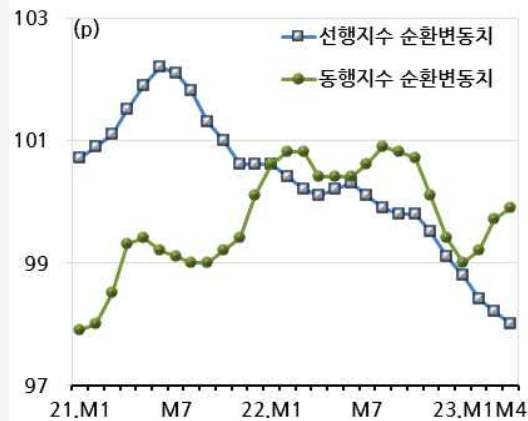
**(경제 성장력의 약화)**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3년 1분기 중 투자와 순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의 호조로 '22년 4분기의 역성장을 탈출하였으나 성장 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2년 4분기의  $\Delta 0.3\%$ 에서  $0.6\text{p}$  증가한  $0.3\%$ 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Delta 0.2\text{p}$ )와 순수출( $\Delta 0.2\text{p}$ )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민간소비 기여도( $0.3\text{p}$ )가 반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반등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전환점(하강에서 상승)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1년 6월(102.2p) 정점을 형성한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미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절벽)**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하였다. 4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전월비( $\Delta 2.3\%$ ) 및 전년동월비( $\Delta 1.1\%$ )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

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하였다.

**(ICT투자 침체)** 전체 설비투자가 비록 반등하였으나, ICT투자가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4.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ICT투자는 지난 1분기 전년동기비  $\Delta 8.6\%$ 에 이어 4월에도 전년동월비  $\Delta 18.9\%$ 로 침체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소폭 반등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건설 수주 불황 장기화)** 4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급감하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4월에 들어 민간 부문(전년동월비 19.3%)을 중심으로 15.8%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침체를 시현하였다. 4월 공공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5.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민간 수주가 58.8%나 감소하면서 전체 수주 증가율은  $\Delta 50.6\%$ 로 급락하였다.

**(수출 경기 장기 침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출 시장과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5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15.2\%$ 로 지난 10월( $\Delta 5.8\%$ )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5월 수출 물량( $\Delta 3.2\%$ )과 수출 단가( $\Delta 12.0\%$ )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별로는 5월 중 최대 시장인 對중국( $\Delta 20.8\%$ )으로의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미국( $\Delta 1.5\%$ ), 對EU( $\Delta 3.0\%$ ) 등의 수출도 침체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5월 중 자동차(49.4%)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36.2\%$ ), 석유화학( $\Delta 26.3\%$ ), 철강( $\Delta 8.8\%$ )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였다.

**(고용의 질적 악화)**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4월 중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22년 4월 3.0%)에서 개선되었으며, 4월 확장실업률도 9.1%로 전년동월의 10.9%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5만 4,000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특히,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Delta 9.7$ 만 명, 건설업  $\Delta 3.1$ 만 명, 서비스업 46.5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핵심경제활동 연령층(25~49세) 취업자수는 4월 전년동월비  $\Delta 4.9$ 만 명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 초반에 안착하였다.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4월 수입물가는 자본재, 소비재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크게 하락하여 2월(전년동월비  $\Delta 0.7\%$ )과 3월( $\Delta 6.9\%$ )에 이어 전년동월비  $\Delta 5.8\%$ 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품목들이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이 하락하고 공업제품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21년 10월(3.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전년동월비 3.3%를 기록하였다.

**(소비 심리 개선)** 고금리, 고물가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 심리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0p를 기록하며 '22년 11월(86.7p)을 저점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4월 58p에서 5월 64p로 개선되었다. 한편, 기업심리를 보면 6월 중 전경련 BSI는 전월비 하락(5월 93.8p  $\rightarrow$  6월 90.9p)하였고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소폭 상승(5월 74p  $\rightarrow$  6월 76p)하는 데에 그쳤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광공업이 크게 침체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 그동안 산업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서비스업이 지난 3월(전월비,  $\Delta 0.5\%$ )에 이어 4월에도  $\Delta 0.3\%$ 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침체 중이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 ■ 향후 경기 위험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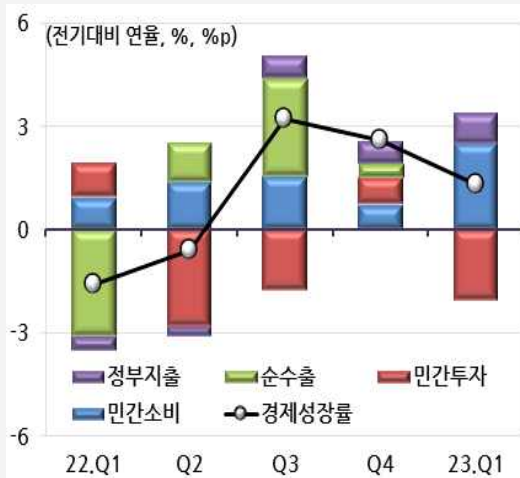
#### (1) 경기 방향성 결정 위험 요인

향후 한국 경제에는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한다.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연율을 1.3%로 지난 속보치의 1.1%보다 상향조정된 바 있다. 이는 고용시장 호조로 가계의 소비 구매력이 위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민간 투자가 침체를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투자 침체 → 고용 악화 → 가계 구매력 약화」 등을 통해 소비 위축이 나타나면서 향후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 중이다.

< 미국 수요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



자료: BEA.

< 미국 경기침체 확률(12개월 선행) >



자료: New York Fed.

주: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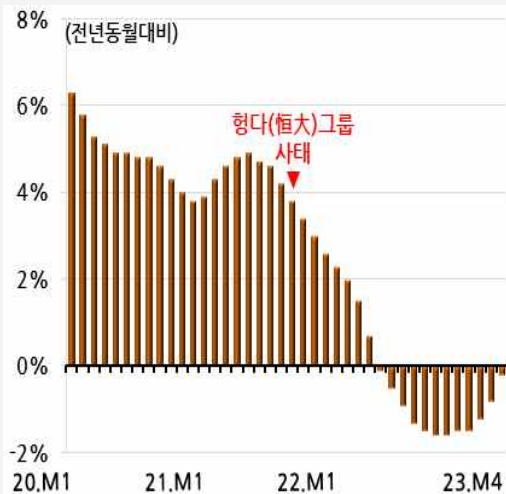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기대되었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실물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12월 전년동월비  $\Delta$ 1.8%에서 2023년 4월에는 18.4%로, 산업생산 증가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5.6%로 상승하였다. 다만, 거저효과를 감안할 때 중국 실물 지표의 회복 속도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높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CDS프리미엄은 올해 1월 말 50bp 내외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5월 말 현재 70bp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달러 당 7위안을 상향 돌파(破七)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 중국 CDS프리미엄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



자료: 国家统计局.  
주: 70개 중소도시 및 대도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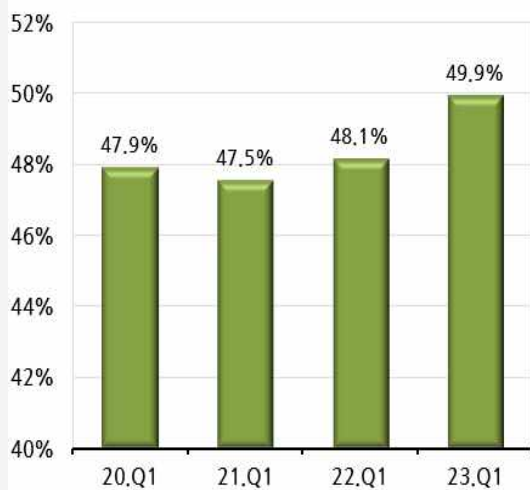
###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현재 소비가 유일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가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질 가격 기준 2023년 1분기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49.9%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의 안전판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2년 11월(86.7p) 이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23년 5월에는 98.0p로 기준치 100p에 근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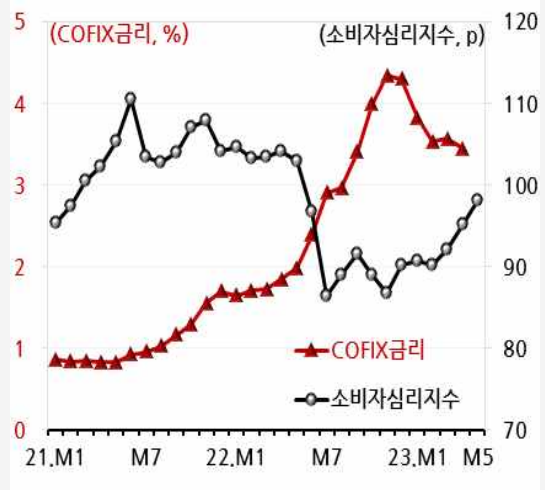
그러나,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하강 및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의 경기 침체 방어 기능이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 부문에서도 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시장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시장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가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

< 민간소비/GDP 비중(실질가격) 추이 >      < COFIX금리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3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硬着陸)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다.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U'자형, 상저하고)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생각된다. 'U'자형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자형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失期)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



나면서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서, 우려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 경제가 ‘경착륙(硬着陸)’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이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불황 국면의 시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 증폭, 자금 시장 경색 등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 1. 개요

○ (경제 성장력의 약화)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지속 중임

- '23년 1분기 중 투자와 순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의 호조로 '22년 4분기의 역성장을 탈출하였으나 성장 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

· '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2년 4분기의  $\Delta 0.3\%$ 에서  $0.6\%p$  증가한  $0.3\%$ 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함

·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Delta 0.2\%p$ )와 순수출( $\Delta 0.2\%p$ )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 소비( $0.3\%p$ )가 반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반등하고 있으나,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1월 99.0p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반등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3년 1월 99.0p, 2월 99.2p, 3월 99.7p, 4월 99.9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1년 6월(102.2p) 정점을 형성한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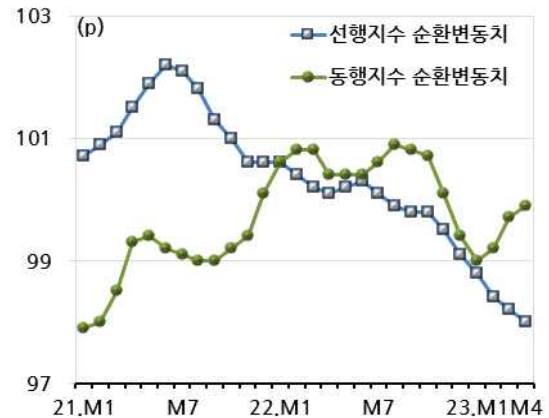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3년 1월 98.8p, 2월 98.4p, 3월 98.2p, 4월 98.0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절벽)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

- 4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비( $\Delta 2.3\%$ ) 및 전년동월비( $\Delta 1.1\%$ ) 모두 감소세를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2년 4분기  $\Delta 0.9\%$ , '23년 1분기  $1.0\%$ , 4월  $\Delta 2.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2.3\%$ , '23년 1분기  $\Delta 0.4\%$ , 4월  $\Delt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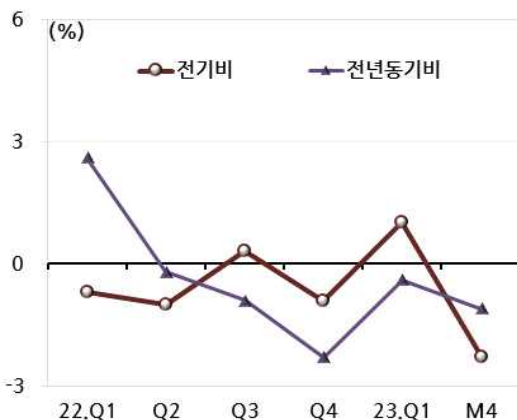
- 내구재가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크게 감소

· 내구재 소비는 가전, 가구 등이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컴퓨터, 승용차 등이 증가하여 3월(전년동월비 2.5%)에 이어 4월에도 증가세(0.4%)를 기록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2.9\%$ , '23년 1분기  $0.0\%$ , 4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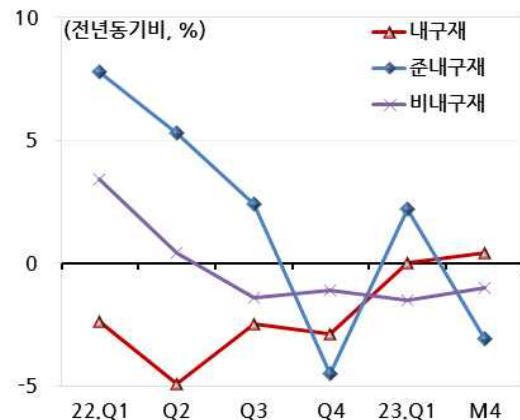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1.1\%$ , '23년 1분기  $\Delta 1.5\%$ , 4월  $\Delta 1.0\%$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ICT투자 침체) 전체 설비투자가 비록 반등하였으나, ICT투자가 크게 부진한 모습

- 4월 설비투자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기준 모두 증가세를 기록

·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비 0.9%, 전년 동월비 4.4%를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2년 4분기 9.6%, '23년 1분기 △0.6%, 4월 4.4%

· 다만,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ICT투자는 지난 1분기 전년동기비 △8.6%에 이어 4월에도 전년동월비 △18.9%로 침체 폭이 확대됨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2년 4분기 0.3%, '23년 1분기 △8.6%, 4월 △18.9%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소폭 반등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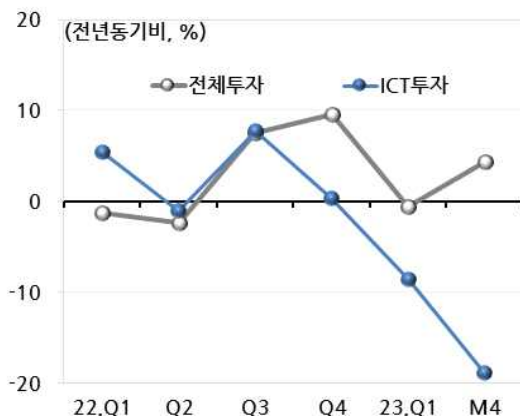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2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23년 1월 △1.0%, 2월 △9.0%, 3월 △5.4%, 4월 8.5%

· 4월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 제외)도 4월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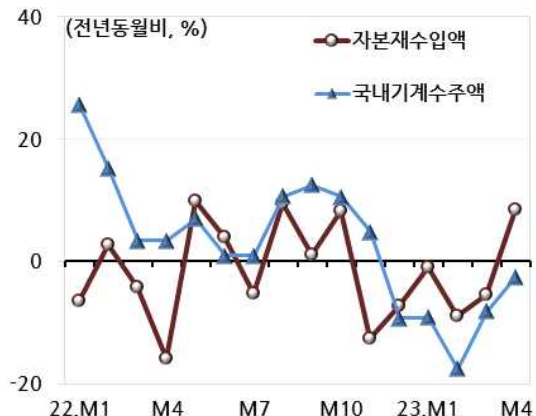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sup>1)</sup>: '23년 1월 △8.7%, 2월 △8.7%, 3월 △7.2%, 4월 8.2%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 수주 불황 장기화) 4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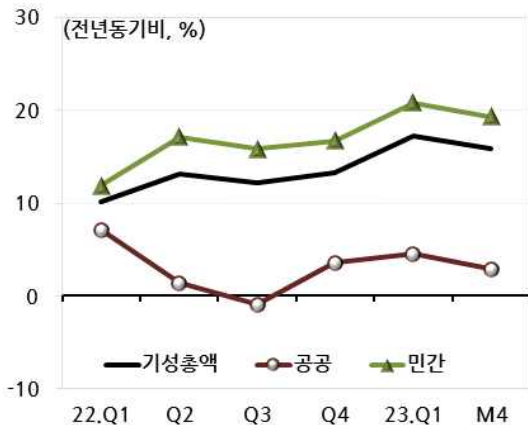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4월에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

- 4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15.8%로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4분기 13.3%, '23년 1분기 17.2%, 4월 15.8%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4분기 3.6%, '23년 1분기 4.5%, 4월 2.9%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4분기 16.7%, '23년 1분기 20.8%, 4월 19.3%

-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침체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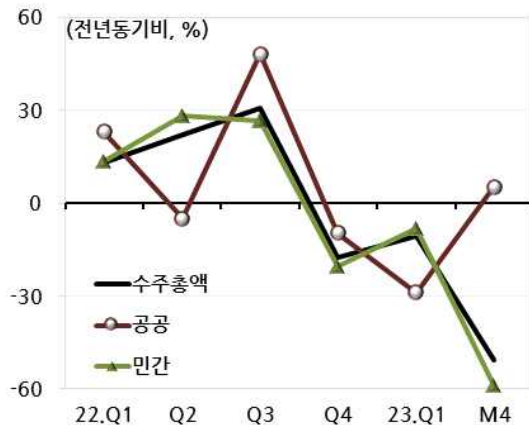
- 4월 공공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5.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민간 수주가 58.8%나 감소하면서 전체 수주 증가율은  $\Delta$ 50.6%로 급락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17.4%, '23년 1분기  $\Delta$ 10.7%, 4월  $\Delta$ 50.6%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9.6%, '23년 1분기  $\Delta$ 28.9%, 4월 5.3%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20.5%, '23년 1분기  $\Delta$ 8.1%, 4월  $\Delta$ 58.8%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장기 침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출 시장과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5월 수출 증가율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

·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15.2\%$ 로 지난 10월( $\Delta 5.8\%$ )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액 증가율: '23년 1월  $\Delta 16.4\%$ , 2월  $\Delta 7.6\%$ , 3월  $\Delta 13.8\%$ , 4월  $\Delta 14.3\%$ , 5월  $\Delta 15.2\%$

· 한편, 5월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동시에 감소하는 전형적 불황 국면을 보임

※ 수출 물량 증가율: '23년 1월  $\Delta 4.4\%$ , 2월  $8.6\%$ , 3월  $\Delta 3.2\%$ , 4월  $1.8\%$ , 5월  $\Delta 3.2\%$

※ 수출 단가 증가율: '23년 1월  $\Delta 12.0\%$ , 2월  $\Delta 16.2\%$ , 3월  $\Delta 10.6\%$ , 4월  $\Delta 16.1\%$ , 5월  $\Delta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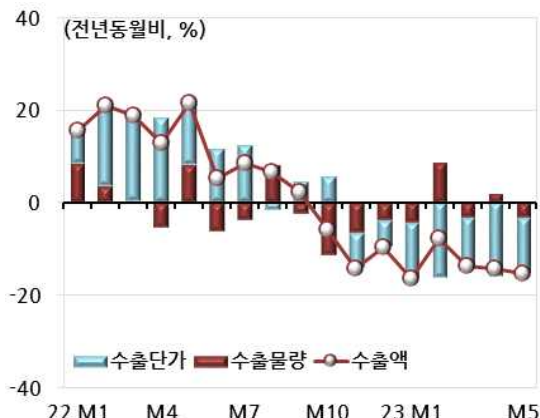
- 시장별로 對중국 수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EU로의 수출도 부진

· 5월 중 최대 시장인 對중국( $\Delta 20.8\%$ )으로의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미국( $\Delta 1.5\%$ ), 對EU( $\Delta 3.0\%$ ) 등의 수출도 침체되는 모습임

※ 對중국 수출증가율: '23년 1월  $\Delta 31.1\%$ , 2월  $\Delta 24.2\%$ , 3월  $\Delta 33.1\%$ , 4월  $\Delta 26.5\%$ , 5월  $\Delta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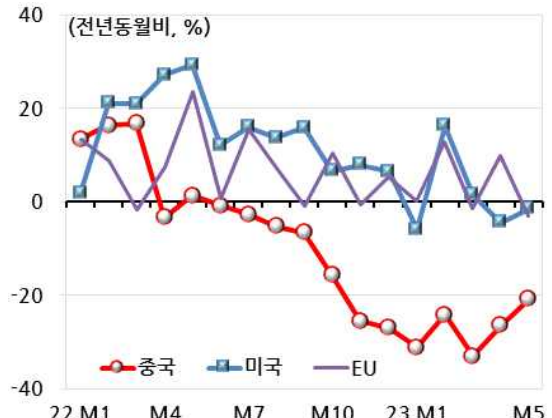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5월 중 자동차( $49.4\%$ )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36.2\%$ ), 석유 화학( $\Delta 26.3\%$ ), 철강( $\Delta 8.8\%$ )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함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의 질적 악화)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 4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sup>2)</sup>도 하락

· 4월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22년 4월 3.0%)에서 개선되었으며, 4월 확장 실업률도 9.1%로 전년동월의 10.9%보다 하락함

-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5만 4,000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주력 산업(제조업 및 건설업) 및 핵심 연령층(25~49세)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

· 4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35.4만 명으로 ‘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취업자 증감(YoY): ‘23년 1월 41.1만 명, 2월 31.2만 명, 3월 46.9만 명, 4월 35.4만 명

·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9.7만 명, 건설업 △3.1만 명, 서비스업 46.5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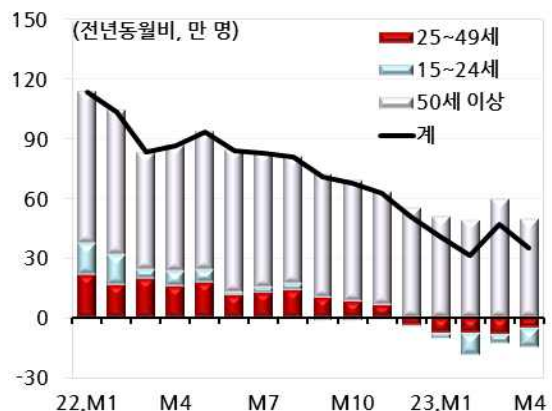
· 한편, 핵심경제활동 연령층(25~49세) 취업자수는 4월 전년동월비 △4.9만 명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주요 산업별<sup>3)</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 초반의 안정적 수준으로 하락

-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

· 4월 수입물가는 자본재, 소비재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크게 하락하여 2월(전년동월비  $\Delta 0.7\%$ )과 3월( $\Delta 6.9\%$ )에 이어 전년동월비  $\Delta 5.8\%$ 의 감소세를 기록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23년 1월 1.9%, 2월  $\Delta 0.7\%$ , 3월  $\Delta 6.9\%$ , 4월  $\Delta 5.8\%$

·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대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품목이 안정화되면서 상승률이 둔화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23년 1월 5.1%, 2월 4.8%, 3월 3.3%, 4월 1.6%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3%로 4월의 3.7%보다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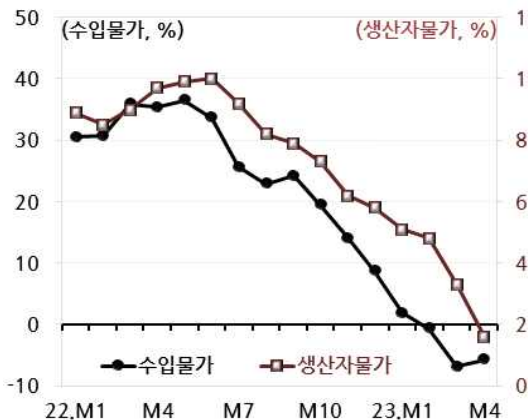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축수산물 이 하락하고 공업제품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21년 10월(3.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23년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4월 3.7%에서 5월에 3.2%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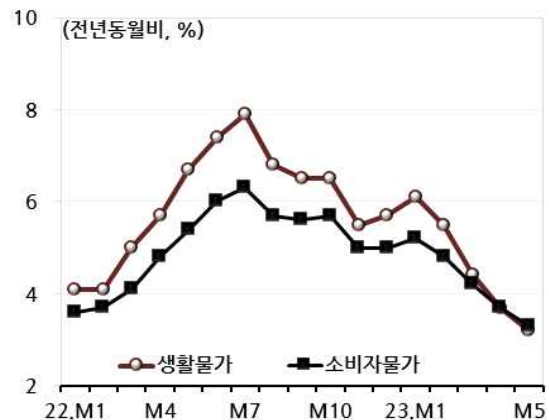
※ 생활물가상승률(YoY): '23년 1월 6.1%, 2월 5.5%, 3월 4.4%, 4월 3.7%, 5월 3.2%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 (소비 심리 개선) 고금리, 고물가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 심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0p를 기록하며 '22년 11월(86.7p)을 저점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

·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4월 58p에서 5월 64p로 개선됨

※ 현재경기판단 CSI: '23년 1월 51p, 2월 48p, 3월 52p, 4월 58p, 5월 64p

· 5월 향후경기전망 CSI도 74p로 지난 4월의 68p보다 상승함

※ 향후경기전망 CSI: '23년 1월 60p, 2월 60p, 3월 63p, 4월 68p, 5월 74p

- 6월 중 전경련 BSI는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한은 BSI는 소폭 상승<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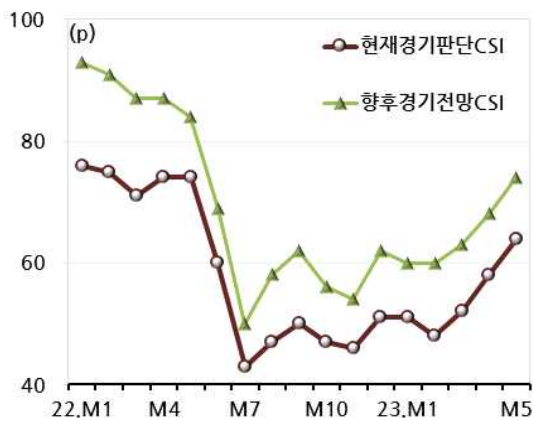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6월 90.9p로 5월의 93.8p보다 하락함

※ 전경련 BSI(전망): '23년 1월 88.5p, 2월 83.1p, 3월 93.5p, 4월 93.0p, 5월 93.8p, 6월 90.9p

· 반면,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5월 74p에서 6월 76p로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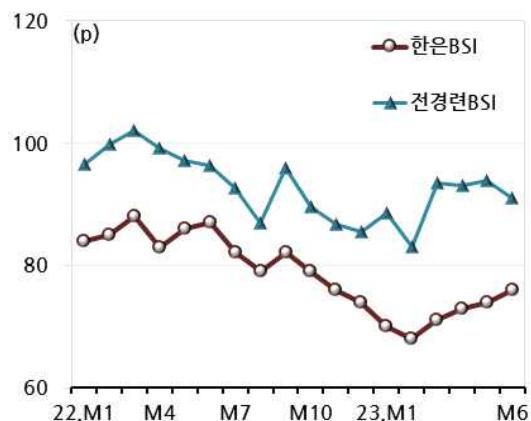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23년 1월 70p, 2월 68p, 3월 71p, 4월 73p, 5월 74p, 6월 76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광공업이 크게 침체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

-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모두 감소세를 기록

·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3월 2.0%에서 4월에  $\Delta 0.8\%$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23년 1월  $\Delta 1.4\%$ , 2월  $3.5\%$ , 3월  $2.0\%$ , 4월  $\Delta 0.8\%$

· 전월비 기준으로도 3월  $1.2\%$ 에서 4월에  $\Delta 1.4\%$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23년 1월  $0.0\%$ , 2월  $1.0\%$ , 3월  $1.2\%$ , 4월  $\Delta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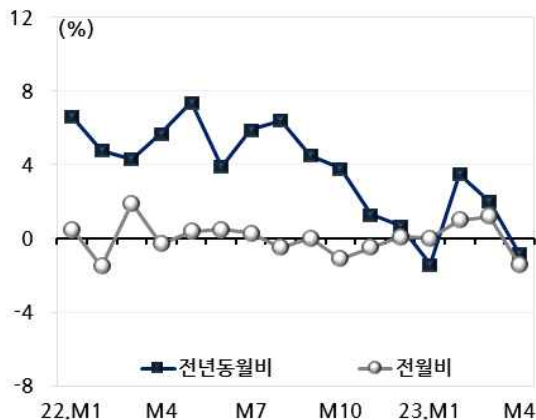
- 4월 중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광공업의 침체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3월 전년동월비  $\Delta 7.6\%$ 에서 4월에  $\Delta 8.9\%$ 로 침체 폭이 확대됨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23년 1월  $\Delta 13.4\%$ , 2월  $\Delta 8.2\%$ , 3월  $\Delta 7.6\%$ , 4월  $\Delta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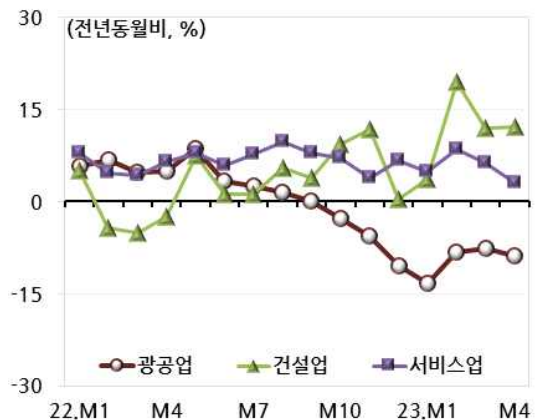
· 전년동월비 기준 4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12.2\%$ 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증가율은 각각  $3.1\%$  및  $\Delta 8.5\%$ 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 지속

- 최근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

· 4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전년동월비 16.6%), 기타운송장비(8.9%)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20.2\%$ ), 화학제품( $\Delta 20.5\%$ )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9.0%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임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23년 1월  $\Delta 14.0\%$ , 2월  $\Delta 8.4\%$ , 3월  $\Delta 7.7\%$ , 4월  $\Delta 9.0\%$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23년 1월 71.3%, 2월 68.6%, 3월 72.0%, 4월 71.2%

- 출하증가율이 급감하고 재고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수요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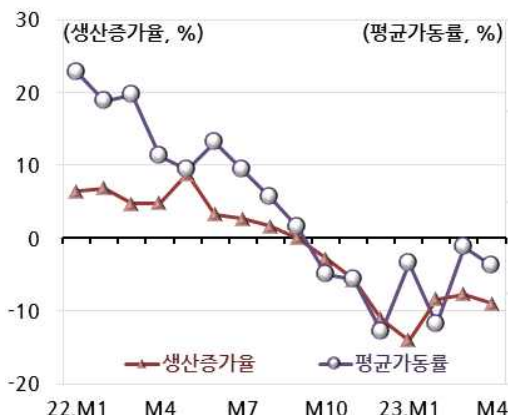
· 4월 제조업 출하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7.0\%$ 로, '22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출하증가율(YoY): '23년 1월  $\Delta 10.5\%$ , 2월  $\Delta 2.1\%$ , 3월  $\Delta 2.1\%$ , 4월  $\Delta 7.0\%$

· 한편, 4월 재고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5.7%로 '22년 7월(1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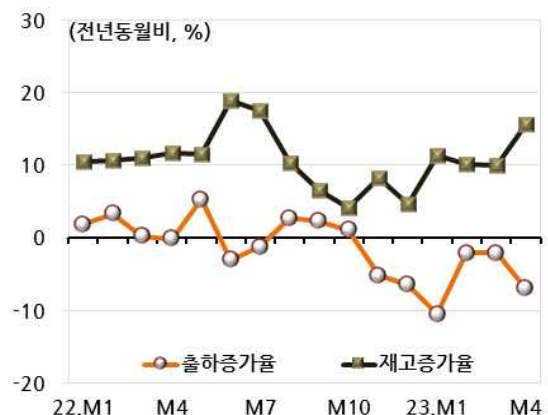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23년 1월 11.3%, 2월 10.2%, 3월 9.9%, 4월 15.7%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건설수주가 크게 침체

- (서비스업) 그동안 산업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서비스업이 침체되는 모습

· 전월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3월(전월비,  $\Delta 0.5\%$ )에 이어 4월에도  $\Delta 0.3\%$ 의 감소세를 기록함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23년 1월 4.8%, 2월 8.6%, 3월 6.2%, 4월 3.1%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23년 1월  $\Delta 0.5\%$ , 2월 2.1%, 3월  $\Delta 0.5\%$ , 4월  $\Delta 0.3\%$

· 전월비 기준으로 4월 중 금융·보험(2.0%), 정보통신(1.8%), 보건·사회복지(0.5%) 등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도소매( $\Delta 3.1\%$ ), 부동산( $\Delta 1.9\%$ ), 숙박·음식점( $\Delta 1.0\%$ ) 등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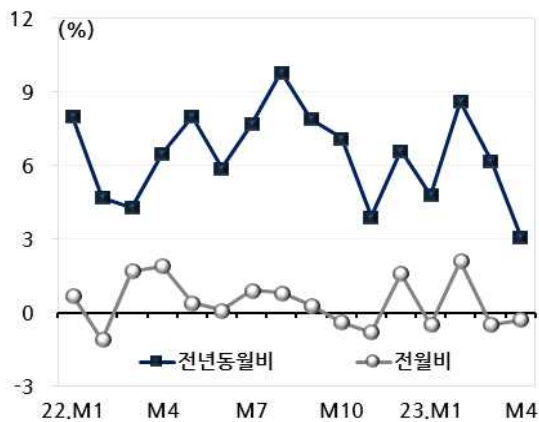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4월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건축 부문이 큰 폭의 감소세( $\Delta 56.1\%$ )를 기록한 가운데, 토목 부문도 지난 1분기(33.2%)의 증가세에서 4월에  $\Delta 22.0\%$ 의 감소세로 전환됨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13.2\%$ , '23년 1분기 33.2%, 4월  $\Delta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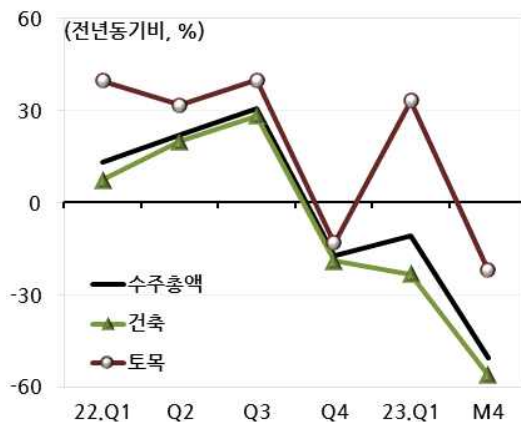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4분기  $\Delta 19.1\%$ , '23년 1분기  $\Delta 23.3\%$ , 4월  $\Delta 56.1\%$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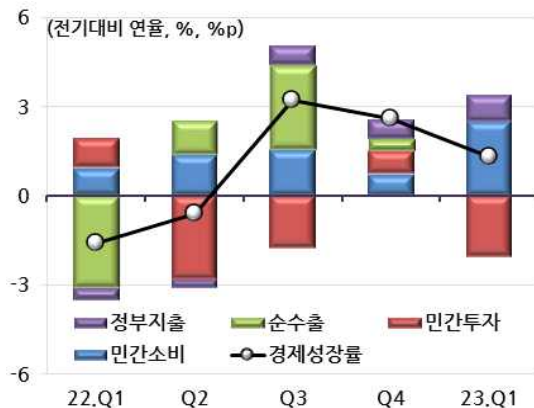
- 향후 한국 경제에는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

####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과잉대응 (over kill)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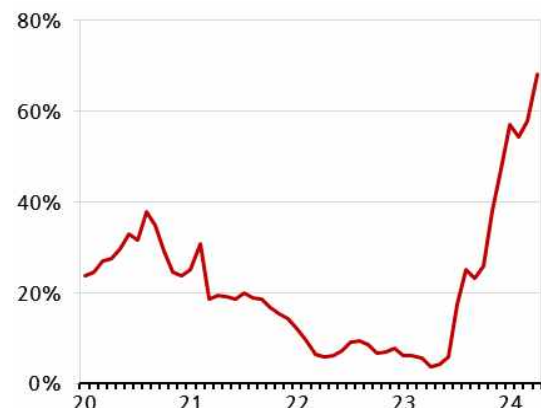
- 미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1.3%로 지난 속보치의 1.1%보다 상향조정
- 그러나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
  -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민간 투자가 침체를 지속 중임
  - 이에 따라 투자 침체, 고용 악화, 가계 구매력 약화 등을 통해 소비 위축이 나타나면서 향후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임

< 미국 수요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



자료: BEA.

< 미국 경기침체 확률(12개월 선행) >



자료: New York Fed.

주: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를 이용.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 기대되었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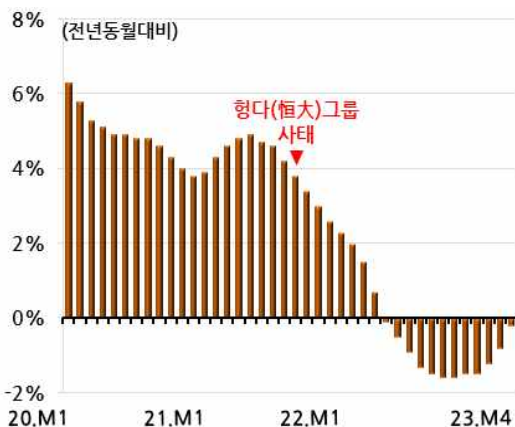
- 최근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실물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12월 전년동월비  $\Delta$ 1.8%에서 2023년 4월에는 18.4%로, 산업생산 증가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5.6%로 상승함
-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중국 실물 지표의 회복 속도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민간과 정부의 높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악화되는 모습

- 2021년恒大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CDS프리미엄은 올해 1월 말 50bp 내외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5월 말 현재 70bp 내외 수준으로 높아짐
- 또한,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달러 당 7위안을 상향 돌파(破七)함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国家统计局.  
주: 70개 중소도시 및 대도시.

< 중국 CDS프리미엄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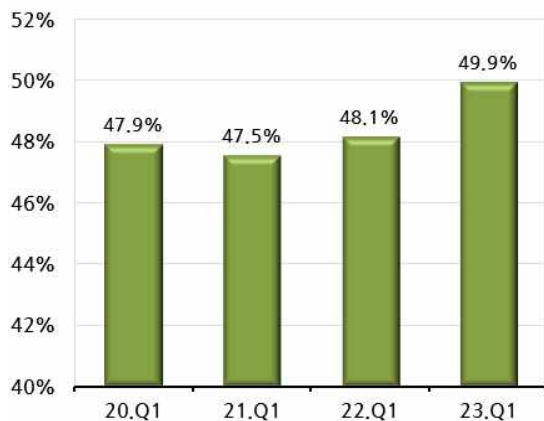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 현재 소비가 유일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존재

-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가 예상외의 호조를 시현
  - 실질 가격 기준 2023년 1분기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49.9%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의 안전판이 되고 있음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임
  -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2년 11월(86.7p)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2023년 5월에는 98.0p로 기준치 100p에 근접함

- 그러나,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하강 및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의 경기 침체 방어 기능이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
  -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 부문에서도 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최근 시장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시장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가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민간소비/GDP 비중(실질가격) 추이 > < COFIX<sup>5)</sup>금리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5)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들로부터 신규수신상품 금리 정보를 받아 산출하는 은행의 자금 조달 시 비용을 의미하며, 가계대출 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임.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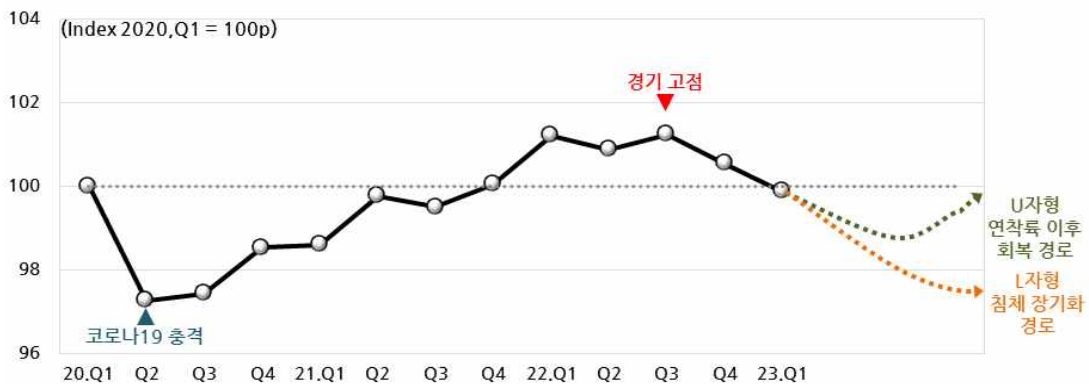
- (현 경기 판단) 2023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硬着陸)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동반 침체되는 모습임

-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U자형, 상저하고)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판단

- **U자형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 :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임
- **L자형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 :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失期)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임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첫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이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

-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일한 경제 안전판인 소비가 언제까지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만약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소비가 침체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는 '경기 활성화' 아니면 '경기 연착륙'에 두어야 할 것임
- 재정정책 기조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의 가치적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집착이나 '미 연준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물 경제, 금융 시장,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둘째, 내수 불황 국면의 시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 외형상 고용 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핵심 연령층 일자리와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가계 소득 저하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소비 위축이 우려됨
-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고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여행지의 인프라 및 관광 상품 정비 및 개발, 여행 경비 할인 및 지원 등의 다양한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의 노력도 요구됨

셋째,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노력이 시급하며, 특히 이차전지·전기차, 반도체 부문 등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통상·외교 노력이 절실함
-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특정 시장 및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문화 산업의 선진화를 본격화하고, 이를 제조업 수출과 국가 브랜드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 공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GVC 교란에 대비하여 원자재·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넷째,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 증폭, 자금 시장 경색 등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 기업 투자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대상과 수혜 폭의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다양한 공공 부문의 기업 신용 공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특화 저금리 투자 상품의 개발,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함
-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국가 산업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관련 시장 규제의 빠르고 획기적인 완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다섯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저소득층 부채의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구매력이 위축되는 것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사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복지재정지출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